

##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지표 정립과 실천사업 추진

- 1위원 1지표 책임지표제 활동 전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 미래를 그려가는 즐거움이 더욱 커져가는 행복도시 아산!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충청남도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산시는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1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온양온천, 동양 4대 유황온천으로 한의학을 접목시킨 도고메디컬스파온천, 테마형 가족온천인 아산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차별화된 온천휴양도시이며, 구국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있는 현충사, 400여 년의 옛정취가 그대로 보존된 외암민속마을, 청백리의 대명사인 고불 맹사성고택 등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도시다.

또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2,2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지해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출규모 1

####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주 소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사청)

전 화 041-540-2049

팩 스 041-540-2328

이메일 younjin2000@korea.kr



위, 무역수지흑자규모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아산신도시 조성 등 미래형 자족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 생활권변화, 마을공동체 해체 등 지속가능발전에 반하는 현상들이 발생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절실한 상황에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기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다.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는 2011년 이전에는 지방정부의 관심 부족과 예산도 미흡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1년 2월 21일 창립총회를 갖고 녹색성장분과, 사회경제분과, 교육문화분과 등 3개 분과에 50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무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의제21 활동분야에 한계를 느끼다

지방의제21은 지역에서의 행동 계획이자 실천이며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함께 할 때 더욱 더 잘 진행된다. 함께 할 때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노력하는 자세이며,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가 기본이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관리/지원은 대부분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부서로 국한될 경우 지방의제21 활동분야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책 논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 인권과 관련된 논의, 기타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실천하다

2011년부터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에서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 아산,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의 주요 사업 중 '지속가능한 푸른 아산'을 평가하기 위한 총 48개 지표사업에 대한 조사 / 작성 / 평가 / 토론 / 홍보 / 실천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표사업' 정립을 위하여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위원이 '1위원 1지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실천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는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환경분야 실천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속가능 정책사업으로 확대(환경부서 → 정책부서로)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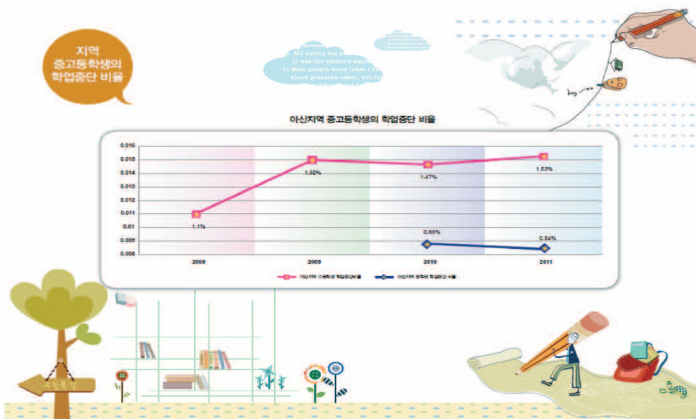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1위원 1지표 책임지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참여 확립

지속가능한 푸른 아산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사업은 분과별 위원들이 제안한 지표들을 예비지표로 선정하고, 3개 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지표 하나하나를 1차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차로 재검토 한 후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총 35개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선정된 35개 지표는 분과위원회에서 1위원 1지표 책임제로 운용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각 지표에 대한 위원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푸른 아산 평가를 위한 지표사업은 기존의 통계내용을 더 폭넓게 분석하고, 위원 워크숍과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통해 분석된 지표 통계를 바탕으로 연계 실천사업을 발굴하였다. 세부 분야별 지속가능성지표와 연계 실천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위원 1지표 책임분담내역(실천연계사업 분야)

| 분야별        | 지속가능성지표<br>(책임위원)                          | 실천사업 내용   |
|------------|--|---|
| 도시환경<br>분야 | ① 1인당 하수처리량 (이주일 위원)                       | - 실개천 살리기 사업<br>- 빈딧불이 보전 및 모니터링사업<br>- 온양천 생태사업 조성사업   |
|            | ② 호소(저수지)의 환경오염정도(김상섭 위원)                  |   |
|            | ③ 아산시 실개천 오염정도(박진용 위원)                     |   |
|            | ④ 곡교천 어종의 수(김상섭 위원)                        | - 걸매리 갯벌, 곡교천 생태모니터링<br>추진  |
|            | ⑤ 아산지역 호소에 나타난 겨울 철새의 수 (김상섭 위원)           |   |
|            | ⑥ 아산시민 1인당 전력사용량(윤영진 위원)                   | - 충남적정기술에너지한마당<br>-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
|            | ⑦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율(이홍엽 위원)                     | - 깨끗한 아산만들기 추진  |
|            | ⑧ 시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여운영 위원)               |   |
| 사회경제<br>분야 | ① 농촌지역의 신생아 수(김재길 위원)                      | - 아산로컬푸드연대  |
|            | ② 아산시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푸른아산21)                  | - 2015 제4차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br>- 인권교육21 모임  |
|            | ③ 아산시 어린이 교통사고율(김희영 위원)                    |   |
|            | ④ 아산시 노인 일자리 수(푸른아산21)                     |   |
|            | ⑤ 아산시 장애인 일자리 수(이찬선 위원)                    |   |
| 교육문화<br>분야 | ① 지역 중학생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br>(천경석 위원)          | -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과 자유학기제<br>학부모설명회<br>- 2015 제4차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과정<br>- 인권교육21 모임<br>- 아산시 인권조례시행을 위한 정책토론<br>간담회 |
|            | ② 고등학교 1인당 교육지원금(신홍철 위원)                   |   |
|            | ③ 교육복지 지원 필요 학생 수 대비 지원받는<br>학생 수 (이진숙 위원) |   |
|            | ④ 지역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진숙 위원)                 | - 아산시민 환경한마당<br>- 아산시민 벼룩시장(매주 토요일)<br>- 아산시민벼룩시장 네트워크  |
|            | ⑤ 아산시 청소년의 행복지수(김경숙 위원)                    |   |
|            | ⑥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아산지역 공연 수<br>(김형기 위원)         | - 아산시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br>이주여성들이 수다로 풀다' 토론회   |
|            | ⑦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횟수 및 참여자 수<br>(김형기 위원)        |   |
|            | ⑧ 다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 행사 및 참여자 수<br>(우삼열 위원)     | - 제2차 아산문화자킴이 활동가 양성과정  |
|            | ⑨ 문화관련 성인 소모임 수(홍사열 위원)                    |   |
|            | ⑩ 자발적 미술 축제 수 (유재문 위원)                     |   |



##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에너지 한자리에 모이다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각 시기별, 장소별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전반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 또한 점차 증대되어 왔고, 이런 맥락에서 대안기술 운동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이 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아산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위주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정기술에 대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충남적정기술의 미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동근 대안기술센터 소장은 ‘한국 적정기술의 발전방향’을, 박승옥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회 회장은 ‘적정기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여론을 형성하였다. 충청남도 역시 역점시책인 3농혁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다.

아산시는 ‘충남적정기술에너지 한마당(2013년 제1회~2014년 제2회)’을 개최하였고, 참여단체 또한 다양했다. 전시



및 체험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 및 체험 기술 프로그램]

| 프 로 그 램   | 주관 단체명           | 비 고 |
|---|------------------|-----|
| EM 발효액 및 천연살충제 만들기<br>대기전력진단 체험                   |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     |
| 로컬푸드 김장 절임배추 예약판매                                 | 아산로컬푸드영농조합       |     |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     |
| 태양열 온풍기<br>태양열 건조기<br>햇빛 발전기<br>기화열냉방패드<br>페트병 전구 |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     |
|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     |
|   |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     |
|   | 알콩달콩적정기술협동조합(준)  |     |
| 자전거 세탁기<br>자전거 믹서기                                | 전국농민회총남도연맹       |     |
|   | 충남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준) |     |
|   | 노동당충남도당녹색위원회     |     |
| 늘 마음뿐인 자원봉사 1365로 시작하세요!                          | 아산시자원봉사센터        |     |
| 아산의 희귀조류 사진전                                      | 한국조류보호협회아산시지회    |     |
| 의제란? 적정기술이란?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     |
| 소수력 발전<br>비전력 펌프                                  |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     |
|   |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     |
| 화목보일러<br>화덕<br>적정기술 커피 로스팅 체험<br>LED등 체험          |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     |
|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     |
|   | 알콩달콩적정기술협동조합(준)  |     |
| 천연페인트/직조  |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     |
| 생태건축모형<br>벽체 전시<br>집짓기 체험                         |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     |
|   | 얼령뚝뚝집짓기노동자협동조합   |     |
| 폐식용유를 연료로~!바이오디젤 알아보기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
| 바람~ 바람~ 바람~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
| 생태건축모형<br>벽체 전시<br>집짓기 체험                         |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     |
|   | 얼령뚝뚝집짓기노동자협동조합   |     |
| 폐식용유를 연료로~!바이오디젤 알아보기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
| 바람~ 바람~ 바람~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

## 가족과 함께한 반딧불이 생태관찰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와 아산반딧불이보존회 주관하여 지속가능성 대표 지표종인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산시 송악면, 영인면 휴양림 일대에서 총105회 206명이 참여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은 물론, 참여자의 네트워크 구성, 사례조사, 보전방안 도출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산시 반딧불이 보전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보전·활용방안에 대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모니터링은 지역사회와 반딧불이 보전방안을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키는 생태관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 가족단위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 부모세대의 오랜 옛 추억의 반딧불이를 함께 관찰하고, 자녀세대가 느껴보지 못한 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옛 모습이 상실된 도랑을

### 어린 손자에게 되돌려준 마을공동체

마을 앞 실개천(도랑)이 생활쓰레기, 농약빈병,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개천에서 빨래하고 물고기나 가재를 잡던 옛 모습이 상실되고 있다. 오염된 도랑은 하천·호소로 유입되어 수질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하천정화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마을 주민과 함께 2011년부터 2018년까지(8개년) 총 45개소의 오염되고 옛 모습을 상실한 실개천에 수생식물 식재, 생태계 복원, 웅덩이 및 여울 설치, 생물서식지(다슬기, 가재 등) 조



성, 마을하천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주민 환경 교육을 통해 주민 주도의 복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은 보전·복원대상 실개천 조사, 주민의견수렴, 복원대상 선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복원활동과 주민이 주도하는 유지·관리 사업 추진 등의 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대상 사업지 주민을 대상으로 물 환경해설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생활 문화유산 보존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방치된 옛 공동우물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오지 마을에 대한 자연정화 습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 前〉



## 하천이 확 달라졌어요!!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온양천 생태공원 조성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유희 하천을 민·관·기업이 함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 제공과 생태학습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 생태 공간 조성사업으로, 2014년부터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매년 3천5백만 원의 예산 지원과 온양3동 새마을회, 순천향대학교, 신도리코(주) 외 다수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어린이집 등에서 물고기 관찰과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실질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

기존의 환경분야에 집중된 실천사업 전개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였으나, 1위원 1지표 책임제 시행 등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시민과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마련하였다.

지방의제21 주무 부서가 환경 부서에서 정책 부서로 이관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사업이 개발되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지표의 정립에는 행정과 지방의제21 활동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실천 가능성이 없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업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

### 지속가능지표와 연계한 실천사업의 시민참여 증가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과 적정에너지(실용에너지) 기술의 필요성 확산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2014년도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자립적인 적정에너지(실용에너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생태 지표종인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 확인과 개체수의 D/B화로 생물다양성 연계사업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시청 관계자, 환경해설가, 아산 반딧불이 보존회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참여로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옛날 마을 하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민·관·단체·기업·협의회 구성을 통한 실질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오염된 하천을 되살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제21 활동가와 적절한 행정의 지원이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일궈냈기 때문일 것이다.

### 한단계 UP된 목표지표 설정

아산시의 지방의제21 활동은 그다지 오랜 역사와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전략적 목적으로 명확히 세우고, 다양한 대상, 단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와 통합적 관리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이 참여함과 동시에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은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과 제도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한 단계 UP된 목표 체계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